

T. S. 엘리엇 학회 회원님들께,

설 명절은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?

다시 한 번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에 많은 성취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.

엘리엇학회 2월 독회에 대한 안내입니다.

연초에 엘리엇이 헤일에게 쓴 편지가 공개되면서 엘리엇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. 편지를 공개하기로 한 헤일의 결정을 알게 된 엘리엇이 자신과 헤일의 관계에 선을 긋는 진술을 작성해서 그 편지들과 동시에 공개되길 요청한 일도 그 배경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. 이 같은 흥미롭고도 시의적절한 문제를 2월 독회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.

새로 시작하는 2월 독회모임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엘리엇의 감성적 측면에 대해 좋은 말씀도 나누시고 엘리엇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

▶ 2월 독회 공지

일시: 2020년 2월 15일(토) 오전 11시

\*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진행추이를 보고 일자 변경이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

장소: 성공회 서울대성당

서울중구세종대로 21길15

02)7306611

지하철 1.2호선 시청역 (서울시의회 및 영국대사관 옆)

발표: 노 저용 교수님(영남대, 한국 T. S.엘리엇학회 제 8대 회장)

제목: T. S. 엘리엇과 여인들: Emily Hale을 중심으로

특별히 이번 독회장소는 성공회 서울대성당으로 정하였습니다. 엘리엇과 깊이 관련된 성공회 성당에서 엘리엇학회의 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김 재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0년 2월 1일

한국 T. S. 엘리엇학회 연구부 드림

